

1970-80년대 도서해양 소설에 나타나는 작가의 공간 인식과 여성 재현 양상 연구*

마 혜 정**

요약

이 글에서는 섬과 바다를 배경으로 놓고 있는 1970-8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작가의 공간 인식의 방식과 그에 따른 여성 인물의 재현 특성을 살피고 궁극적으로는 지리학적 관점을 빌려 우리 문학에서 도서(島嶼)해양(海洋) 공간이 장소화되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했다. 먼저 유흥종의 「흐르는 섬」(1980), 김용성의 「무거운 손」(1981)에서는 섬을 시원(始原)의 공간으로 파악함에 따라 그곳에 있는 여성이 섬과 일체화되고 섬-여성은 남성에 의해 발견되어야 하는 존재로, 그 자체로는 장소성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됨을 밝혔다. 두 번째로 강인수의 「밀물」(1979),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1987)에서는 남편 없는 잠녀(해녀)들이 바다를 노동의 장소 삼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두어 장소의 성격을 살폈다. 잠녀들에게 바다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곳으로 반복적 고통을 통해 '물 속'을 신체화하고 비로소 그들만의 장소로 삼기에 이르지만 결국 그곳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통 속에 자맥질해 들어야 하는 곳,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체험의 장소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천승세의 「신궁」(1977)에서는 어촌 '장선포'와 무당 '왕년이'의 '굿창'의 의미에 대해 주목했다. '굿창'이란 '왕년이'를 무녀로서의 자아를 획득하게 하는 장소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한편 섬사람들은 바다에 명줄을 엮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각 '왕년이의 굿창'을 장소화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물들이 점유한 그 장소 안에 섬 '장선포'의 내력(來歷) 또한 내재화 되어 있음을 살피 이를 작가가 드러내고자 했던 '장소의 정신'인 것으로 설명했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5012)

** 목포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주제어: '도서해양 소설', 공간, 장소, 공간 인식, 여성, 시원(始原), 생육(生慾), 내력(來歷), 내력(內力), 운명

목차

1. 서론
2. 시원(始原)의 공간과 남성 장소의 보조적 재현
3. 생육(生慾)의 공간과 운명 체현의 장소 재현
4. 내력(來歷)의 공간과 장소적 존재의 내력(內力) 재현
5. 결론

1. 서론

자연에 대한 묘사가 작품 속에 정서적 분위기만을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고 시대의 감각을 전달하는 수단 이 된다¹⁾ 할 때, 우리 문학사에서 특히 바다는 중요한 공간으로 다뤄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바다에 근대성의 전달 경로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신소설이 바다에 대한 정경 묘사를 배제한 것에 대해 제국주의의 얼굴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역사 인식의 미숙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바다 저편이나 바다 자체에 대한 피상적 낙원 의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 바 있다.²⁾ 이후 소설사에서 바다는 그 속성에 바탕해 인간의 내면을 드러내는 상징적 배경이 되거나 사회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는 인간의 장소로 동원되면서 본격적 삶의 공간으로 수용되기에 이른다. 가령, 1950-60년대에 발표된 오영수의 「갯마을」(1953)을 위시 해 한승원의 「목선」(1968)이나 이청준의 「석화촌」(1968) 등이 바다를 단

1) 최갑진, 「한국 현대소설이 갖는 바다의 인식지형」, 조규익·최영호 편,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344면.

2) 위의 글, 같은 면.

지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반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섬과 어촌, 갯벌 등과 함께 사회적 장소로서의 공간³⁾으로 인식되어 인간 문제의 저변에 놓인 구체적 배경으로 작동하며 당시 활발하게 창작되었던 ‘농민문학’의 일종으로 다루어져 온 바 있다. 1990년대 중반 즈음에는 ‘해양소설’ 명칭과 관련해 연구자 간 논쟁과 함께 관련 소설 선집 발행 등으로 학계의 관심을 끌기도 했으나 그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관련 논의가 거의 없는데, 이 글에서는 지난 맥락을 이어받되 공간의 장소화 관점에서 바다와 섬 배경의 소설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여기서 공간의 장소화란 공간과 장소가 각각 다른 개념을 갖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논제로 먼저 이에 대해 살핀다.

인간의 삶이 시간과 공간에 의해 조건 지어지는 것처럼, 서사체 인물의 삶 또한 시간과 공간적 제약하에서 형성된다. 세계-내-존재인 존재자가 각각 자신의 ‘거기’로서 존재하듯 인물 역시 서사 내에서 삶의 공간, 체험된 공간을 삶으로써 서사세계-내-존재인 현존재의 공간성을 획득한다.⁴⁾ 이때 삶과 체험을 조건으로 갖는 ‘공간’은 장소 철학의 사유에 따르면, 무한한 연장(extention)을 뜻하는 개념이기보다 ‘장소’라는 다른 말로 귀착되는 의미다. 현존재는 ‘안에 있음’의 방식으로 장소에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의 본령은 ‘살기 혹은 거하기에 있다는 하이데거의 설명에서 보듯 공간과 장소와 인간이 맺는 관계 의미는 인간존재의 본질적 속성인 ‘거주’에서 비롯되는 것이다.⁵⁾ 지리학자 E. 랠프의 설명에 따르면 공간 개념은 추상적이어서 실체가 없는데 여러 하위 개념 중에서도 특히 실존과 생활공간의 내부에 있는 의미의 중심지를 장소라고 이른다.⁶⁾ 다시 말해 장소란 ‘이동 중 정지(pause in movement)’⁷⁾하는 곳으로 거주함으로써 활동과 의

3) 위의 글, 346면.

4) 장일구, 「소설 공간론, 그 전제와 지평」,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15면.

5) 에드워드 케이시, 박성관 역, 『장소의 운명』, 에코리브르, 2016, 484면.

6) 에드워드 랠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설』, 논형, 2005, 63면.

미를 생성하는 곳이며 장소 정체성은 물리적 환경과 인간 활동, 의미 이 세 가지 요소의 관련성에 의해 주어진다. 물리적 환경이 인간에게 적절한 입지를 부여하면 인간은 경관이나 풍경에 대한 직접적이고 감정 이입적인 경험 속에서 환경을 취하며, 수많은 사회적 행위와 공유된 역사 속에서 의미를 생성한다.⁸⁾ 결국 서사체란 그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 어떤 공간에서의 다양한 장소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영위하는 인간 활동을 엮어낸 이야기이며 인물들은 각각 나름의 장소를 살아가며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허구 세계를 운용하고 규율하는 것은 작가의 공간, 혹은 장소 인식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섬과 바다를 사회적 장소로 수용함과 동시에 여성 인물에게 구체적 역할을 주고 있는 1970-80년대 소설에 집중해서 서사 맥락에서 인물들이 공간에 대해 보이는 행위적 또는 심리적 감각을 살펴 작가의 공간 인식 지형을 소급해보고 뒤이어 그러한 인식 하에서 완성되는 여성 인물의 재현 양상과 의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문학에서 ‘도서(島嶼)해양(海洋)’ 공간이 장소화되는 과정을 밝혀내려 한다. 여성 재현 양상을 중심으로 살피는 이유는 도서해양 배경의 소설 대부분이 남성작가에 의해 산출되면서 남성 편향적 인식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여성 인물의 등장이 일면 그것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살피게 될 작품 속 여성은 도서해양 공간과 함께 남성 인물의 시선과 죽음 및 자기 전환에 의해 이중적으로 장소에 갇히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이 공간을 완전한 삶의 장소로 쟁취하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작가가 서사체에 설정한 공간 인식의 방식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위에서 쓴 ‘도서해양’이라는 조어를 확장해 관련 소설을 ‘도서해양 소설’로 이르기로 한다. ‘도서해양’은 역사학자 강봉룡이 해당 글에

7) 아푸 투안,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53면.

8)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14면.

서 섬과 바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한 묶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섬과 바다의 일체성’을 논구하며 제안한 용어로⁹⁾ 문학 담론에서 이를 차용한다면, 섬과 바다의 속성(소통과 고립의 양면성)을 지닌 그곳에 포섭되어 육체적, 정신적인 실감 속에 묶인 삶을 사는 인간들의 치열한 분투를 담고 있는 소설을 일러 ‘도서해양 소설’로 부를 수 있을 듯하다.¹⁰⁾ 그간 해양문학의 개념 및 장르 구축이 기존 섬과 바다, 어민 관련 서사 논의의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인간 삶과 접점을 이루는 바다가 어떻게 서사에 재현되고 있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논의가 전개될 시점¹¹⁾인 만큼 이 글에서 새롭게 생성한 ‘도서해양 소설’이라는 용어와 공간 인식의 문제는 관련 시도로써 주요해 보인다. 섬과 바다라는 추상적 공간을 인간 삶의 장소로 안착시키는 과정, 곧 공간의 장소화를 논구하는 과정에서라면 어떻게 재현되는가의 문제는 환경과 활동의 결합이 어떤 의미를 생성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대상 도서해양 서사의 궁극적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간과 장소 개념을 활용한 도서해양 소설¹²⁾ 연구로는 작가의 공간의

-
- 9) 강봉룡, 「섬의 인문학」 담론-섬과 바다의 일체성과 양면성의 문제, 『도서문화』44, 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 2014, 13-15면. 그에 따르면 도서해양은 소통성(개방성)과 고립성(폐쇄성)을 양면의 속성으로 갖는다. 바다를 단절의 공간으로 인식할 경우 섬은 그 바다에 의해 차단되어 고립되는 폐쇄 공간으로, 바다를 통로로 인식하게 되면 섬은 바닷길에 의해 소통되는 개방 공간(징검다리)으로 인식된다.
- 10) 이는 그간 문학계에서 대두되었던 섬과 바다, 어민 관련 문학에 대한 개념 정립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섬과 바다의 일체성’ 관점에서 보면, 해상에서의 체형 소설만을 장르로서 ‘해양소설’로 보려는 구모룡의 주장(구모룡, 『해양문학이란 무엇인가』, 전망, 2004, 18-25면)이나 해양(바다, 어촌, 섬)을 대상으로 하며 그것을 주제로 삼거나 해양 체형(어민, 당골, 노동, 원양선 등)을 소재로 한 문학 전반을 ‘해양문학’으로 포괄하려는 최영호의 견해(최영호, 『한국문학 속에서 해양문학이 갖는 위상』,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20-21면) 속에서 그 핵심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 11) 이광재·정도미·임환모, 「한·중 해양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용봉인문논총』55, 전남대인문학연구소, 2019, 245면.
- 12) 이 글에서는 천승세의 「신궁」(1977), 강인수의 「밀물」(1979), 유홍중의 「흐르는 섬」(1980), 김용성의 「무거운 손」(1981),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1987)를 다룬다.

식에 주목하고 연구자 구모룡 식의 협소한 범주에서의 해양소설(바다에서의 체험이 지배적이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제를 구현한 소설)을 대상으로 분석한 옥태권의 연구가 있다.¹³⁾ 바다와 배라는 특정 공간의 상징성을 주축으로 죽음과 공포, 도피와 구원의 공간, 노동과 축소된 사회로서의 공간으로 의미화하고 있는데 여타의 섬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논의하고 있는 연구들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는 내용이어서 공간 개념의 적절한 적용이나 대상 소설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점을 한계로 들 수 있겠다. 그가 수용한 해양소설의 개념 자체가 대상 소설의 편수를 극단적으로 축소시키는데다 소설에서 해상에서의 시간만이 주로 그려지면서 결과적으로 공간으로 지칭할 인간 삶의 장소가 부족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영호¹⁴⁾와 김정하¹⁵⁾의 연구는 같은 방향에서 쓰고 있더라도 선별 소설의 층위가 폭넓어 더 다양한 사례를 들면서 섬의 이미지를 설명하는데 공통적으로 죽음과 재생, 정체성 회복, 이상향 이미지로 상징성을 정리한 바 있다. 정유미¹⁶⁾는 문순태의 「안개섬」과 이청준의 「섬」, 현길언의 「흔들리는 어둠」을 대상으로 섬을 바라보는 위치와 섬 안에서 벌어지는 권력관계의 문제를 다루었다. 섬이 가진 고립과 완벽의 성질을 통해 섬과 바다가 단순한 공간적 배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시선과 권력의 역학 관계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해 앞의 연구들과 다른 독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해 보인다. 각 작품과 관련한 선행 연구는 본문에서 필요에 따라 언급한다.

13) 옥태권, 「한국 현대 해양소설의 공간의식 연구」, 『동남어문논집』18, 2004, 220면.

14) 최영호, 「환상과 구원의 장소로서의 섬-한국 문학 속의 섬」, 『현대문학이론연구』36,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15) 김정하,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해양관과 '섬'의 상상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998.

16) 정유미, 「1980년대 중반 한국 소설에 나타난 섬의 공간적 상징성 연구」, 『감성연구』9, 호남학연구원, 2014.

2. 시원(始原)의 공간과 남성 장소의 보조적 재현

섬은 오랜 시간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던 곳이다. 우주창조설은 대부분 물의 혼돈에서 시작되어 땅은 처음에 반드시 하나의 섬으로 나타나며 각종 전설에서 섬은 죽은 자나 불멸하는 존재들의 거처로, 또 바다가 있어 육지의 나쁜 것과 격리되기 때문에 인류 타락 이전의 순수함과 지복의 상태, '대모신'의 처소, 낙원, 축복의 섬, 한시적 도피처로 상징된다.¹⁷⁾ 유흥종의 「흐르는 섬」(1980)¹⁸⁾과 김용성의 「무거운 손」(1981)¹⁹⁾에서 섬은 정확하게 그 같은 공간 의미 차원에서 상상되고 있다.

유흥종의 「흐르는 섬」은 액자 형식 구조로 안과 밖 모두 남성 서술자에 의해 전달된다. 액자 안의 서술자인 '나'의 이야기가 소설의 중심 줄거리로 사진기자인 '나'는 어느날 '문명의 발치에서 오염되지 않은 싱싱한 자연과 원시의 현장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136면)를 얻어 겨우 무인도를 찾아 들어간다. 그런데 무인도에는 '해지고 빛이 바랜 감청색 스커트에 남자의 흰 와이셔츠를 입었는데 앞섶을 잘근 동여매고 팔목을 걷어올린 차림'²⁰⁾을 하고 있어서 '첫눈에 섬 여자가 아닌 도시 여자냄새'(141면)가 풍기는 여자와 그녀의 어린 두 아들이 있다. 여자를 발견한 뒤 섬은 무인도가 아니라 여자와 일체화된 특별한 공간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나는 '여자와 아이들의 모습이 섬의 외로움으로 공감'되고 '여자의 과거가 섬의 내력을 이루고 있을지도 모른다'(143면)고 여기며 '섬이 여자의 숨소리로 살아있다'(145면)는 느낌을 받는다. 무인도는 이제 섬이

17) 이-푸 투안, 이옥진 역,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185면.

18) 유흥종, 「흐르는 섬」, 최영호 엮음, 『한국해양문학선집4』, 한경, 1995.(이하 이 소설의 직·간접 인용은 면수만 표기함)

19) 김용성, 「무거운 손」, 위의 책.(이하 이 소설의 직·간접 인용은 면수만 표기함)

20) 홀로 거친 야생의 섬에서 살아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외향이기보다는 당시 TV 광고에서나 불법한, 남성들이 상상하는 이상적 이미지에 가까워 보인다. 이는 섬과 바다에 얽힌 실제 삶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온 듯한 작가적 상상력의 한계로 볼 수도 있겠다.

면서 여자다.

우리가 무인도를 바라보았을 때 막연히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그 섬은 죽어 있다. 우리는 그 섬을 마치 **무정란**을 바라보듯 바다 위에 떠있는 무의미의 그림자를 볼 뿐이지. 사람이 무인도에 가지 않는 이유는 그 섬에서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고,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모든 의미의 단절을 뜻하는 거야. 나는 여자를 통해 비로소 싱싱하게 살아있는 섬의 모습을 보았네.(146면, 강조는 인용자)

“하지만 알맞은 때에 이 섬에 오신 건 제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147면, 여자의 말, 강조는 인용자)

인용에서 읽히듯 섬은 ‘나’의 여자 발견이라는 사건을 통해 비로소 ‘살아 있는 것’으로 인식되며 보편 인간의 ‘모든 의미의 단절(146면)로부터 벗어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의미’라는 것이, ‘무정란’의 상태였던 섬-여자가 남성의 입도(入島)를 맞아 아이를 잉태하고 그제야 ‘특별한 의미’의 형태로 획득된다는 점이다.²¹⁾ 그것은 섬-여자에게보다도 액자 안팎의 각각의 ‘나’에게 더욱 각별하다. 죽기 직전 친구(액자 밖의 ‘나’)에게 그 ‘특별한 의미’, 곧 ‘여자의 세 번째 아이’이면서 ‘내 아이’(152면)에 대한 ‘마지막 소망’을 ‘유언’으로 남기는데, 친구는 이를 ‘신화의 한 토막처럼 듣고’(136면) 같은 ‘모험’을 반복해 시도하려 한다. 이에 대해 최영호는 ‘어떤 유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몸을 결합해

21) 섬에 도착했을 때부터 ‘나’는 두 아들의 존재를 의아해하며 섬-여자가 ‘스스로 잉태할 수 있는 천부의 능력을 섬으로부터 접지받은 것’(144면)은 아닌지 궁금해한다. 그러다 그날 밤 ‘꿈같이 황홀했던’(151면) 순간을 함께 보내고 이후 여자가 숨긴 배를 다시 찾아 섬을 떠나지만 5년여가 지난 뒤 죽기 직전에 문득 여자가 말했던 ‘특별한 의미’를 떠올리며 그제 후시 자기의 아이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의문을 액자 밖의 ‘나’에게 유언처럼 전달한다. 이후 액자 밖의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배를 훔쳐 타고 ‘보이지 않는 섬’을 향해 ‘모험’을 떠난다.

새로운 생명을 낳고 그것을 품어 기르는 여성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섬의 공간적 상징성을 설명한다.²²⁾ 그러나 섬-여자의 상징성이 남성적 욕망에 의해 완성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여기서 섬-여자는 남자의 입도(入島)로만 가능한 어떤 역할을 부여받는 '빈 공간', 남성들의 꿈과 이상, 공포들이 발생하는 신화화된 '여성(Woman)'으로서의 상상의 장소²³⁾일 뿐이다. 섬의 고립과 미지의 속성을 인간 고독의 알레고리로 삼고 바다를 자기 정체성의 확인²⁴⁾을 위한 남자의 모험을 지지하는 공간으로 삼고 있지만 여성은 남성의 개입에 의해서만 의미가 주어지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남성들은 공간 안에서 존재이지만 여성들은 의미 없음'²⁵⁾일 뿐이다.

김용성의 「무거운 손」은 서울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있는 비교적 일찌감치 생활의 기반을 닦은 30대의 건장한 체구의 상인'인 '김서홍'이 '홀쩍 떠남'(156면)을 즐기던 중 '장생도'에서도 더 멀리 나가야 하는 '외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다 '고둥이 다닥다닥 붙은 시꺼먼 바위 사이로 터널'처럼 뚫린 '작은 구멍'과 또 그 사이에 떠 있는 '이름 없는 섬', '저주받은 땅'(159면)을 발견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섬에 끌려가 자갈밭을 개간하는 노동에 동원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섬에는 문명 세계와는 다른 규율이 있어서 '큰할머니'의 지시 아래 모든 가구가 자급자족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집에는 젊고 건장한 남자를 납치해다 주기도 하는데 '서홍' 역시 '정 이'와 '동이' 납매를 위해 납치된 경우로 '정 이'에 따르면 그 남자들이 살아서 섬을 나간 경우는 없다. '서홍'은 처음에 '부당하고 불법적인 사역'(171면)이라고 생각해 일하지 않지만 자신이 납매의 몫을 빼앗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안 뒤부터는 개간일에 참여하게 되고 '죄없는 사람에게 내려진 형

22) 최영호, 「한국 해양소설의 기호학적 해석 가능성-이청준, 김용성, 유홍중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273-275면.

23) 뎀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 1997, 33-34면.

24) 김정하, 앞의 글, 357면.

25) 린다 맥도웰,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 2010, 87면.

밭'과 같은 노동을 충실히 해내면서 겨울 대비용 연탄을 실어오는 작업반에 뽑혀 '장생도'에 다시 밭 딴을 기회를 얻는다. 그리고 작업을 끝낸 뒤 탈출 기회를 엿보다 자신이 '장생도'에 오게 된 데에는 온전히 '정이'의 배려와 희생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김서홍군. 내가 하는 이 말을 가슴에 깊이 새겨두게. 만약에 자네가 장생도에 가서 엉뚱한 마음을 먹고 탈출을 시도한다면 정이는 죽고 만다는 것을 말일세. 그건 남편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죄가 되므로.”(180면)

'정이'가 '큰할머니'를 비롯한 섬사람들 모두에게 거짓말로 결혼했다고 알린 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도 자신의 탈출 기회를 마련한 것을 알게 되자 '서홍'은 그녀에게 줄 선물을 사서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간다. 극악한 노동과 규율로 운용되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서홍'이 다시 그 섬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인고해온 '정'이'에 있다. 이에 대해 '타율적 삶에 대한 비판과 인간성 회복의 환기'²⁶⁾로 의미화하고 있는 최영호의 지적은 일면 타당한 데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것은 그렇게 주요한 역할임에도 서사에서 '정'이의 섬에서의 장소 점유에 대한 묘사는 매우 적어 보인다는 점이다. 거주 장소인 섬에서의 삶에 대한 정신적 실존적 유대감이나 장소에 대한 깊은 개입의 일부로써 나타나는 고역스러움, 혹은 섬이 부과하는 제약과 고통을 수용하는 데서 오는 주체적 자각마저도 없다.²⁷⁾ 단지 자갈밭 개간 노동으로 흥취해 보이는 '무거운 손'을 달고 있다는 것과 내리는 눈을 바라보는 때의 '깊은 우수가 깃들여' 있는 눈과 표정 정도, 그리고 '서홍'을 인정받게 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신혼 재미가 깨 쏟아지듯 좋다'(179면)고 거짓말한 것 정도에 그친다. '서홍'의 변화를 이끌고 현대적 삶에 대한 성찰의 여지를 주

26) 최영호, 위의 글, 272면.

27) 에드워드 랠프, 앞의 책, 102면.

는 인물이지만 ‘서홍’의 시선에서는 겨우 그가 이 섬을 떠날 수 없는, 인간 모형의 장소, 장소애(토포필리아)를 대리하는 인간이 되어 있다.²⁸⁾ 그래서 ‘서홍’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의 장소는 섬이기보다 여성 ‘정’이 있는 섬, 모계사회적 규율 속에 남성 존재가 단순히 노동력으로만 치부되는 속에서 자신을 위한 희생을 자처하는 여성이 있는 섬이다. 여기서 자연조건으로서의 섬은 반문명의 원시 모계사회에 대한 작가적 상상력에서 기원한 디스토피아의 한 유형에 불과하다.

이처럼 두 작품에서의 섬은 남성애 의해 열고 닫히는 공간이다. 여기서 여성은 추상적인 형상으로 그친다. 작가 혹은 초점자가 섬을 내력(來歷), 곧 역사 없는 시원의 공간으로 파악했을 때 섬과 일체화된 여성은 ‘나’에 의해 발견되어야 하는 존재이며, 남성의 입도(入島) 혹은 거주 없이는 여성은 ‘거기에 있음’의 존재, 곧 장소성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없다. ‘나’가 섬을 떠나고 잊어가면 이후 그 섬은 의미 있는 실존의 중심 장소²⁹⁾가 아니다. 그곳은 수태를 위해서나 성적인 모험을 위한, 혹은 위로를 위한 거주 장소가 되고 여성은 자기 자신의 장소를 결여한 채 착취당하거나 쾌락 혹은 연민의 집 장소로 환원된다.³⁰⁾ 결국 그 섬은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으며 남성 자아 ‘나’의 인간됨을 고양시키는 나만의 부수적 장소일 뿐, 도서해양을 삶의 조건으로 갖는 인물들이 살아내는 진정한 장소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28)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서홍’의 시선을 따라 ‘거주받은 섬’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서술한 부분도 다시 읽힌다. ‘고둥이 다닥다닥 붙은 시꺼먼 바위 사이로 터널처럼 뚫린 ‘작은 구멍’이 있고 그것은 ‘사람 몸 하나가 기어서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비좁았는데 바로 그 터널 끝 저쪽 푸른 바다 가운데 ‘마술을 부리는 요지경 속처럼’(158면) 떠 있다고 묘사되는 ‘이름없는 섬’은 그 자체로 이미 음습한 여성적 외형을 표상하고 있다.

29) 에드워드 랠프, 앞의 책, 119면.

30) 에드워드 케이스, 앞의 책, 650면.

3. 생육(生慾)의 공간과 운명 체현의 장소 재현

가부장적 세계관 안에서 특히 여성과 ‘집-장소’의 정체성은 상호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³¹⁾ 앞서 살핀 두 작품에서는 ‘마음이 있는 곳이자 여성이 있는 곳’³²⁾으로써 섬을 여성의 장소로 상징하고 그곳을 둘러싼 남성의 활동을 주요 서사로 삼았는데, 이때 섬은 집의 다른 이름이다. 농·어촌 사회의 가정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라면 대개 집이 그대로 여성의 장소가 된다. 남성들은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집-여성은 그들을 맞아 안정과 신뢰에 기반한 가정을 완성함으로써 그 안에서 남성에게 의해 조성된 집에 대한 장소감³³⁾을 유지한다. 그런데 도서해양 배경의 작품에서 주된 이야기거리로 등장하는 것은 거친 자연 환경으로 인해 바로 그 같은 장소감을 지속하지 못하는 여성들이다. 강인수의 「밀물」(1979)³⁴⁾,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1987)³⁵⁾는 공통적으로 남성 없이 팍팍한 살림을 꾸려야 하는 여성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아버지나 남편이 모두 바다에 나갔다가 사고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여성들은 이제 집에 대한 장소감을 상실한다. 하지만 아직 지식들이 남아있기에 그 원한의 바다를 상대로 다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그들에게 바다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보듬어줄 유일한 노동의 장소로 변환된다. 두 작품에서는 그들의 노동인 ‘물질’과 관련한 꺾어진 묘사와 함께 그 바다에 대한 여성 내면의 원망(願望) 묘사가 두드러지는데, 이에 바탕해 여성 주인공들이 원한의

31) 도린 배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출판문화원, 2015, 320면.

32) 위의 책, 같은 면.

33) 에드워드 랠프, 앞의 책, 150면. 랠프에 따르면 진정한 장소감이란 무엇보다도 내부에 있다는 느낌이며, 장소감을 개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나의 장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다.

34) 강인수, 「밀물」, 최영호 엮음, 『한국해양문학선집』5, 한경, 1995.(이하 이 소설의 직·간접 인용은 면수만 표기함)

35) 고시홍, 「표류하는 이어도」, 위의 책.(이하 이 소설의 직·간접 인용은 면수만 표기함)

장소이자 노동의 장소인 바다에 대해 갖는 장소감에 대해 보기로 한다.

먼저 「밀물」은 주인공 ‘길녀’가 5년 전 어부이던 남편 ‘덕출’을 태풍으로 잃고 외아들 ‘진구’를 위해 ‘넌더리가 나도록 싫어진 바다지만 어려서부터 몸에 밴 물질이요, 먹고 살 길은 바다뿐이라 남편 잃은 3년 만에 다시금 물질을 시작(113면)한 뒤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물질로 꽉꽉한 삶을 꾸리고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다. 공부 잘하는 아들의 ‘졸업비’를 만들고 그 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바다에서 살게 해서 안 된다는 강렬한 욕심(110면)을 채우기 위해 ‘길녀’는 ‘진구 아방’을 앗아간 바다를 끔찍하게 싫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물질’을 한다. 바다에 살지 않으려 바다로 다시금 뛰어들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운명으로 여기며 수용하는 이유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여자란 그런 것(114면)³⁶⁾이라는 가르침에서 얻은 체념적 인내심 덕분이지만 또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기억 공간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질을 시작하거나 끝낼 즈음이면 항상 ‘멀리 매물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남편 ‘덕출’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길녀’에게 바다는 분명 삶의 중심에 있는 애착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꿈쩍없이 묶여 있다는 끔찍한 고역의 느낌을 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특히 고역스러움을 더하는 것은 그곳이 언제든 죽음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길녀는 고막이 쟁해 옴을 느끼면서도 내친김에 그놈을 잡으리라 하고 케 안으로 들여다보았다. 순간 길녀는 기겁을 하고 말았다. 허영고 길다란 것이 누워 있었던 것이었다. (중략)

“저것 봐! 순이네가 분명히 없어. -뒤옹박만 떠있구마.” (중략) “민녀

36) ‘길녀’가 시집을 때 떠나는 뱃머리에서 친정 어머니가 말한다. “길녀야, 이를 옥물고 살아라. 여자란 그런 것이여…….”(114면) 바닷마을에 사는 여자의 신산한 삶을 이미 몸소 겪은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이 겪을 동일한 고생을 예견하며 해주는 말로, 섬 여성의 삶에 대한 일종의 운명론적 주술처럼 들린다.

어명이 4년 전에 죽은 바로 그 자리가 아닌갑여.”(121-123면)

‘길녀’가 ‘물 속에서 인골을 보고 기겁한 장면’에 뒤이어 물질 동료인 ‘순이네’가 뒤웅박만 남겨둔 채 물 위로 떠오르지 않는다. 이후의 상황은 전개되지 않은 채 서사는 마무리되는데 그 같은 결말이 암시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바다는 ‘길녀’를 비롯한 잠녀(해녀)들을 속박하는 장소로서 죽음 자체이기도 하다.³⁷⁾

「표류하는 이어도」는 바다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뒤 ‘을선’과 ‘길수’ 남편을 키우려 물질하는 잠녀 ‘억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사에서 ‘억순’은, 똑같은 신세였다가 ‘대국놈’의 첩이 된 친구 ‘빌레’를 ‘화냥년’ 취급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대국놈’에게 마음을 기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싶어하는 어린 남편의 ‘영화비’를 만들기 위해 ‘오늘은 단 몇 분이라도 더 물 속에서 살다 나오리라고 다짐’(252면) 하기도 하면서 ‘물 속’을 살아야 하는 과부된 여자의 박복한 운명을 살아내는 중이다. ‘남편 제사가 내일’이고 ‘달포 안으로 다가선 시아버지의 담 제일이며 비료값, 을선이 남편의 사친회비’도 마련해야 하며 ‘금년엔 초가지붕도 갈아 덮어야 한다.’ ‘돈 들어가야 할 곳이 돌담 구멍만큼이나’(243면) 많은 상황에 ‘억순’이 믿을 곳은 단 한 곳이다.

돈 나올 구멍이라고 이승과 저승의 문턱, 바다 밑의 설드럭밖에 없다. 믿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솥통을 뒤웅박 하나에 저당 잡혀 놓고 해물을 건져 낼 수 있는 바다 속의 토지뿐이다.(243면)

‘억순’이 억척스럽게 살기를 욕망하지만 바다는 인용처럼 죽음을 전제로 삶을 내어주는 곳,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문턱’, 곧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곳이다.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곳’, ‘돈 나올 구멍’이기도 하지만

37) 에드워드 랠프, 앞의 책, 101면.

「밀물」에서도 묘사되듯 ‘허영고 길다란 것이 누워」(「밀물」, 121면) 있는 인골(人骨)이 발견되는 곳이며 어느 때고 물속에서 떠오르지 않는 동료가 있을 수 있는 곳, ‘숨통을 뒤옹박 하나에 저장 잡혀야 하는 곳이다. 그마저도 쉽게 허용하지 않을 때가 많아 간장을 끓이게 하지만 결국 ‘김을 매지 않아도 되고 비료값 걱정을 할 필요도 없기에 더욱 소중한 보물」(243면)을 안겨주는 곳이기도 ‘역순’은 ‘숨통이 부어오르는 고통’을 참아가며 ‘물 속’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키워낼 자식이 있는 한 ‘물 속’으로의 자백 질은 계속된다. 결국 잠녀들은 이 같은 반복적, 습관적 고통을 통해 ‘물 속’을 신체화하고, 이로써 바다는 잠녀들의 장소, 곧 체험된 장소³⁸⁾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잠녀’들이 부르는 노래 속 ‘이어도’는 그들의 장소 ‘물 속’의 속성을 선명하게 한다. 두 작품에서 이어도는 잠녀들의 고행에 동행하고 고통을 위안하는, 실재하지 않는 구원의 섬이다.³⁹⁾ 「밀물」에서 잠녀들은 ‘이어도사나’를 부르면서 지금의 처지를 위로하고 자기 소망을 표출하며 「표류하는 이어도」에서는 이어도가 구름을 밀어 액운을 막아주고 물살로 한숨을 씻어주기도 하고 바람을 불어 간장에 붙은 불을 꺼준다고 믿기에 두려움 없이 물질을 할 수 있다. ‘미역이며 소라, 전복이 많은 보물섬」(「표류하는 이어도」, 257면)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아직 아무도 가본 사람도, 찾아 나서기는 하지만 되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곳이다. 특히 ‘해녀들의 생명선을 끌고 다니는 뒤옹박 같은 섬」(「표류하는 이어도」, 257면)이라는 대목은 잠녀들에게 이어도가 어떤 의미인지 짐작케 한다. ‘뒤옹박’

38) 에드워드 케이지, 위의 책, 461면.

39) 이 잠녀들의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도 사람들의 이어도를 더 치밀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청준의 「이어도」다. 잠녀들의 이어도는 「이어도」의 인물 천남석의 그것과 같다. 이청준의 「이어도」에 대한 분석에서 김개영은 서사 내 섬사람들은 이어도에 홀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질곡을 견디기 위한 적극적인 응전으로써, 초월성 또는 영원성을 그들의 삶속에 내화(內化)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김개영, 「이청준 『이어도』에 나타난 섬 공간의 무속성」, 『도서문화』60, 목포대도서문화연구원, 2022, 287면)

은 잠녀들이 ‘물 속’에 있을 때 그 위치를 알리고 물 위에 떠 있을 때는 부여안고 쉬면서 동시에 자기 위치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닻이거나 부표와 같다. 그래서 ‘물살이 거셀 때는 닻돌’의 역할로 큰 돌을 망사리 끈에 매디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맥질을 하고 나왔을 때마다 뒤옹박에 끌려 천방지축 달아나 버리는 것이다.’(257면) 이어도 역시 그 뒤옹박처럼 잠녀들의 생육(生慾)을 지탱하는 생명선이지만 실재하지 않는 섬이기에 천방지축 쫓다가는 죽음에 이를 수 있다. 이어도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환상이고 죽음으로의 유혹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삶에 대한 의지를 북돋는 곳이다. 그렇다면 잠녀들의 ‘물 속’은 고통의 현세와 죽음 뒤에나 만날 수 있는 환상의 섬 ‘이어도’를 잇는 경계 공간인 셈이다. 따라서 잠녀들에게 ‘물 속’은 안정감과 행복을 주는 장소이기보다는 이어도에 묶여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통 속에 자맥질해 들어가야 하는 곳, 거기서 남편을 잃었지만 배운 게 물질이고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체현 장소가 될 것이다.

두 소설에서 볼 수 있듯,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이들의 생활 공간에 대한 짙힌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대리적 내부성(vicarious insideness)⁴⁰⁾의 관점에서 바다와 그곳을 사는 인간 군상의 생육(生慾)을 경험하게 하지만, 마치 종교적 유토피아⁴¹⁾와 같은 죽음-이어도를 전제한 ‘물 속’의 사정은 그림에도 들어가 체현해야만 하는 인물들의 안타까운 운명을 강화해 보여준다. 이때, 그 장소는 어떤 의지적 행위도 허용하지 않은 채 거기에 가둠으로써 그녀들에게만 가능한 닫힌 세계로 그치고 마는데, 이 때문에 독자들로서는 교감과 해석을 통한 유의미한 도서해양 공간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40) 에드워드 랠프, 앞의 책, 123면. 대리적 내부성이란 간접적이거나 대리적인 방식으로 장소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41) 이승준, 『이청준 소설 연구-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한국학술정보, 2005, 101면.

4. 내력(來歷)의 공간과 장소적 존재의 내력(內力) 재현

도서해양 공간에 속한 사람들은 그 지리적, 생태적 조건 때문에 그들의 믿음 체계를 발달시켜왔다. 풍요를 주기도 하지만 언제 재난을 몰고 올지 모를 불가촉의 바다를 상대로 삶을 꾸려야 하므로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 형태도 다양한 편이다.⁴²⁾ 특히 무속신앙과 섬 공간 간의 친연 관계에 대해 설명한 김개영에 따르면 무속의 사유체계와 윤리감각은 섬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며 고립과 윤패, 불가항력적 생존 환경을 극복하는 기제로서 작용해왔는데 그러한 상관성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포착해 낸 이가 곧 작가 천승세이다.⁴³⁾ 천승세의 「신궁」(1977)⁴⁴⁾은 흥어철을 맞은 어촌 장선포에서 무당 '왕년이'와 객주 '판수'가 벌이는 갈등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 작품으로 척박한 자연과 무속 간의 관계에 바탕한 인간들의 길항을 다루는 한편 당대 사회의 부조리와 그 근원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평자들에게 상찬받은 바 있다.⁴⁵⁾ 같은 계열로 논의되는 작품인 「낙월도」가 극한 기아 상태를 견디다 못해 세도가들의 첩으로 들어왔

42) 이경엽, 「바다, 삶, 무속: 바다의 의례적 재현과 의미화」, 『한국무속학』26, 한국무속학회, 2013, 190면.

43) 김개영, 「천승세 소설에 나타난 섬 공간과 무속 「낙월도」와 「신궁」을 중심으로」, 『도서문화』52, 2018, 213면.

44) 천승세, 「신궁」, 『한국해양문학선집』3, 한경, 1995. 「신궁」은 월간지 『한국문학』 1977년 7월 호에 게재된 작품이나 이 글에서는 『한국해양문학선집』3권에 실린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이하 이 소설의 작간집 인용은 면수만 표기함)

45) 대표적인 논자가 염무웅으로 「신궁」이 어촌과 어민에 대한 깊은 천착과 토속적 언어가 적절히 활용되면서 다른 차원의 현재성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염무웅, 『민중시대의 문학』, 창비, 1994, 334면) 또, 결말에서 '왕년이'가 객주 '판수'를 대못 지른 화살로 쏘아 죽이는 것과 관련해 이를 섬사람들의 공동의 적을 정치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그것을 토속적·민중적 역량을 일깨우는 호소의 외침이자 사회적 모순에 대한 타격의 신호로 평가한다.(같은 글, 336면) 「한(恨)의 정서와 저항성의 표출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김개영(앞의 글)과 윤애경(「신궁」에 나타난 토속적 생명력 연구, 『어문논집』51, 어문학회, 2005)의 연구도 같은 맥락에 있다. 모두 무당 '왕년이'라는 문제적 인물의 행위 의미에 한정된 논의들이다.

게 되는 섬여성들의 불행을 그들의 관습적 신앙심과 연결함으로써 저항할 수 없는 불모의 공간성을 그리는 데 그치고 있는 반면⁴⁶⁾, 「신궁」에서 작가는 무녀(巫女)를 서사의 중심에 놓고 그의 무업(巫業)과 ‘장선포’라는 인간의 공간, 그리고 광포한 자연 공간인 바다를 함께 다루면서 뛰어난 미학적 형상화를 통해 무속과 여러 공간 간 관계 의미를 또렷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그간 선행 연구를 수용하되 무녀의 몸과 그의 ‘굿창(굿터, 굿마당, 굿판)의 의미에 대해 주목하고 그로부터 창출되는 장선포의 공간 의미를 다시 확인해보려 한다.

어촌 장선포에 무당의 힘이 필요한 이유는 평범한 인간의 의지로는 바다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바다를 생계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로서는 무엇보다 바다를 관장하는 힘을 가진 초자연적인 존재를 갈구하게 되는 데, 그 존재와 어민 간의 소통을 굿이라는 의례를 통해 구현해낼 수 있는 이가 곧 무당인 것이다.⁴⁷⁾ 어민들은 무당을 통해 자신들의 사정을 고하고 이를 전달받은 신이 무당을 통해 바다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믿는다.⁴⁸⁾ 그래서 ‘장선포가 ‘당골레 굿으로 묵고 못 묵고’(202면) 하는 곳이라면 ‘당골레’ 역시 ‘괴기배 읊는 곳에서는 못사’는 인물이다. 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곳에 무당이 있을 수는 없다.

“.....아까도 부탁했지만 괴기배 읊는 땅에서는 당골레가 못 묵고 살어. 고사굿 한판이라도 가다가닥 신명을 앵겨사..... 가서 자알 혀 봐......”(174면)

46) 그래서 이보영은 「낙월도」를 ‘선주와 상전첩의 물리적 심리적 폭력이 자행되는 중세기적인 암흑사회(이보영, 「종말적인 세계의 명암-천승세론」, 『현대문학』11월, 1980, 22면)로 본다.

47) 이경엽, 앞의 글, 192면.

48) 굿의 기본적인 목적은 인간의 물음과 바람에 대한 신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신의 말을 듣는 과정을 공수라 한다.(이용범, 「굿, 소통을 통한 관계맺음의 의례」, 『한국무속학』32, 한국무속학회, 2016, 72면)

장선포는 해마다 풍어철로 벌벌 끊었고 그 혜택은 모두 왕년이의 영험한 고사굿 덕분이라 하여 장선포에서 배를 부리던 선주 영감들은 왕년이를 신주 모시듯 아끼던 터였다.(177면)

신명을 떨치던 시어미 ‘어린년’이 굿을 하던 중에 갑자기 숨줄을 놓자 ‘왕년이’는 외삼촌의 당부(첫 번째 인용)를 새기며 ‘괴기배’ 있는 땅 장선포로 옮긴 뒤 영험한 굿솜씨로 ‘장선포에서만 열두 장내’를 사기에 이른다. 그의 신명이 오르던 때에 겹쳐 풍어기가 지속되자 사람들은 ‘왕년이’의 굿과 장선포의 풍요를 직결해 설명하고 수용한다.(두 번째 인용) 그의 굿이 있었기에 풍어가 왔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한 과잉의 믿음이 가능한 것은 ‘왕년이’의 ‘굿칭’이 선주를 비롯한 어민들에게 특별한 의미의 장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굿칭’은 신명을 받들고 풀어내는 ‘왕년이’ 자신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섬사람들이라면 너나없이 모여 신에게 자신들의 바람을 전달하고 신의 뜻을 전달받는 곳이기도 하다. ‘굿칭’이 있고 ‘굿칭’을 주도하는 무당이 있어야만 가능한 소통으로 그들은 풍어철을 누리며 신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고 여긴다. ‘굿칭’이란 ‘왕년이’를 무당으로서의 자아를 획득하게 하는 장소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한편, 섬사람들, 특히 어민들은 바다에 명줄을 얹고 ‘당골레 굿으로’ ‘괴기밥’을 ‘묵고 못 묵고’ 하는 공통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왕년이의 굿칭’을 각각 장소화하고 그 같은 기회를 반복함으로써 신심을 유지하는 것이다⁴⁹⁾⁵⁰⁾.

그러나 남편 ‘옥수’가 죽은 이후 ‘왕년이’는 굿손을 놓고 며느리 ‘쫓간년’에게만 굿을 맡기고 있다. ‘굿할 맴이 읊어서 굿손’을 놓음으로써 그 장소

49) 이처럼 장소의 정체성과 장소에 대한 정체성은 각각 구분된다.(에드워드 램프, 앞의 책, 110면) 섬사람들에게 ‘굿칭’은 일종의 ‘헤테로토피아(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상이한 공간들로서 다른 장소들)(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48-57면 참고)의 역할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50) 이 같은 굿칭의 역할은 남편 ‘옥수’를 포함한 여섯 어민의 죽음을 계기로 벌인 셋길굿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 ‘차일 밖의 구경꾼’까지 ‘왕년이’의 굿을 보며 ‘줄줄 눈물줄줄’(195면) 단다.

제공을 거부하는 ‘왕년이’에게 사람들은 ‘인사 한자리’ 없이 ‘눈깔질들만 흘끔흘끔’(185면) 할 뿐이다. 그때를 즈음해 시작됐다가 지금까지 흥어철에 허덕이고 있는 장선포의 불행의 원인 또한 ‘왕년이’에게 있다고 믿는다. 악덕 객주 ‘관수’는 장선포에 ‘기막힌 흥어’가 지속되는 것도 ‘전부 왕년의 책임이라고 우격다짐마저’ 하며 억지를 부리기까지 한다.⁵¹⁾ 선주를 비롯한 어민들의 이 같은 절박한 바람을 보면서도 ‘왕년이’가 그들이 청하는 곳을 극구 거절하는 것은 ‘관수’의 배를 타고 나갔던 남편 ‘옥수’가 배를 지키려는 선주의 욕심 때문에 어창에 갇혀 죽어 돌아온 일에 대한 원한 때문이다.⁵²⁾ 이후 장선포 유지들과 ‘관수’의 계속되는 요청에도 ‘왕년이’는 곳 열기를 거절하지만 어느 날 ‘관수’와 함께 방만한 복철 영감의 애절한 부탁에 감정이 북받치면서 갑작스러운 접신(接神)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였다. 푸석 무릎이 꺾이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핏줄이 터지는 듯싶었다. 등쪽으로 오한이 뻗치면서 온몸이 금세 땀으로 젖는다. (중략) “……영, 영음허능갑다아……영음허능갑다아…….” (중략) 고막을 울리며 날벼락치듯 경경대던 소리가 천천히 사그라들면서 하늘 속을 떠오르는 듯한 대명신의 목소리가 형언 못할 거들을 떨어낸다. (203면)

51) “엿병 삼 년에 오그랑방탱이로 셋바닥 빼물고 늘어질겨. 당골레가 지년 폰수를 모르구서 뭐가 어찌? 곳을 안켰다? **이녀려 흥어도 죄다 왕년이년 곳이 읍서서나그려.** 니기미 혈년을 그냥 사추리째루다 발랑 까서는 칠성각 앞에다 포박을 지위뿐져서 쓸랑가 윈!”(168면, 강조는 인용자)

52) ‘왕년이’의 무업이 잘 되면서 크게 돈을 모으게 되자 ‘옥수’가 배 ‘해룡환’을 사들여 선주가 된다. 이후 몇 번 조업을 나갔다 오지만 흥어기가 닳치면서 ‘관수’의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배를 빼앗기게 되고 일거리를 찾아 어쩔 수 없이 ‘관수’의 배를 타는데 어느날 폭풍이 불자 사람보다 배를 살리려던 선장의 결정으로 어창에 갇힌 채 죽어 돌아온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옥수’가 자기 배를 ‘관수’에게 넘기고 ‘관수’의 배 중 다른 하나를 탈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장선포’ 어민들을 착취하던 어협과 지서, 객주(‘관수’)로 이어지는 술수, 즉 경제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개영은 이를 자본주의적 근대의 폭력성으로 설명한다.(김개영, 앞의 글, 229면)

‘옥수’의 죽음으로 굿손을 놓고 있었으나 복철 영감으로 대변되는 섬사람들의 순수한 신심을 듣자 무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함을 의미하는 장면이다. 신은 장소를 갖지 않지만 ‘대명신과의 영음’으로 표현되는 접신의 과정을 통해 ‘왕년이’의 몸을 장소 삼아 내려 앉는다. 이때 ‘왕년이’의 몸은 ‘장소-로서-신체⁵³⁾, 다시 말해 그 자체로 존재-장소가 된다. 무속의례의 주요 목적이 신과 인간의 만남을 통한 소통이고 여러 방식 중 가장 역동적인 소통을 이끄는 것이 곧 신적 존재의 직접적인 현현⁵⁴⁾임을 상기할 때 이 같은 접신은 무당의 영험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굿창’에서의 진정한 소통의 가능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에 ‘왕년이’는 다시 굿판을 벌여 스스로 존재-장소가 됨으로써 획득 가능했던 진정한 소통을 ‘굿창’에서 발현한다. 따라서 인용의 접신 장면은 신적 존재의 보다 직접적인 현현이 실현되는 신내림이라는 무속적 의미도 있지만 이후 ‘굿창’에서의 ‘왕년이’의 소통의 행위 의미를 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왕년이’의 신체를 통한 신과 섬사람들의 소통은 주지하듯 ‘판수’의 죽음을 그 내용으로 한다. ‘영음’을 겪고 난 뒤 ‘왕년이’는 ‘대명신’의 뜻, 곧 장선포 공동체의 뜻을 대변해 한(恨)을 씻는 해원의 행위로서 섬의 부정(不淨, 여기서는 ‘판수’)을 제거하기에 이른다.⁵⁵⁾ 어업의 풍요를 추구하는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왕년이의 굿창’을 각각 장소화했던 어민들은 이제

53) 에드워드 케이시, 앞의 책, 655면. 이 책에서 설명하는 뤼스 이리가레이의 용어 의미를 확장해서 적용했다.

54) 이용범, 앞의 글, 69면.

55) 김정하, 앞의 글, 74면; 김개영, 위의 글, 230면. 이에 대비해 양윤의는 ‘왕년이’이라는 인물의 살인 행위가 광적인 상태에서 행한 본능의 분출이며 재난을 몰고 오는 자연의 특질과 유사하기에 그는 ‘토속적 생명력’을 지녔다기보다 자연과 분리되지 않은 원초적 인간임을 지적하며 천승세의 소설 세계가 재난의 상상력으로 구성된 세계라고 본 바 있다. (양윤의, 「천승세 소설 연구-「낙월도」, 「신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269면) 이는 「신궁」에서 또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회 역사적 모순에 대한 지적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으로 보인다.

공통의 원한을 가진 장선포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으로서 ‘굿칭’을 각각 장소화한 게 된다. 요컨대, ‘굿칭’이 ‘하위주체들의 공적 대향공간’⁵⁶⁾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왕년이’의 정체성 또한 논란의 지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개영의 견해를 쫓기로 한다. 평소 ‘굿칭’에 섬으로써 무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획득했던 ‘왕년이’지만 이 시점의 그는, 김개영에 따르면 ‘공동체가 가진 원과 한’을 똑같이 체득한 이로서 ‘공동체와 자신을 한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공적 사제와 사적 존재로서의 이중적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⁵⁷⁾한 상태로 서 있다. 당시 염무웅 또한 결말의 의미를 같은 맥락에서 ‘토속적·민중적 역량을 일깨우는 호소의 외침’으로 본 것인데, ‘왕년이’의 행위가 일면 무당으로서만 또는 어민 ‘옥수’의 아내로서만 가능한 편향된 자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합한 자기 초월적 행위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이를 장소적 존재의 내력(內力)으로 의미화할 수 있겠다.

이로써 장선포의 내력(來歷) 또한 완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들의 치열한 분투를 거쳐 사회 역사적 의미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 작가가 설정한 공간의 내력은 비로소 시대와 민중을 담은 ‘장소의 정신’⁵⁸⁾으로 읽히고 있다.

56) Fraser, N. Rethinking the public sphere: a contribution to the critique of actually existing democracy. *social text*, 1990, 25-6, 56-80. (린다 맥도웰, 앞의 책, 264면에서 재인용) ‘하위주체들의 공적 대향공간’이란 주변화된 집단이 주류사회가 특정 공공장소에 부여한 본연의 기능에 저항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전용하는 공적 공간을 지칭한다. 실상 ‘왕년이’의 굿관은 선주 영감들이 넉넉한 ‘앞돈’을 낸 덕분에 열리는 것이고 ‘왕년이’도 그 덕에 돈을 모아 남편에게 ‘해통환’을 사줄 수 있었다. 따라서 ‘왕년이’의 굿칭은 선주들을 위한 ‘고사굿’이지만 여기서는 착취당하는 가난한 어민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전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 장소, 곧 저항의 장소로 취하고 있다.

57) 김개영, 앞의 글, 228면.

58) 에드워드 렐프, 앞의 책, 115면.

5. 결론

세계-내-존재에게 제한적 시간과 공간이 삶의 기본 영위 조건이듯 서사 세계-내-존재에게도 그것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공간은 소설 세계를 구성하는 결정적 인자이며 그 세계 이해의 관건으로 소설 공간의 문체는 실제 세계와의 정합성을 전제로 놓고 보기보다 공간 형상의 구성에 작용하는 인지들의 역학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⁵⁹⁾ 인간 삶의 현실에서 공간이 현존재의 해석과 기획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과정적 산물이듯 소설 공간은 작가의 의식과 독자의 체험으로써 새로이 기획되고 창출되는 곳이기 때문이다.⁶⁰⁾ 섬과 바다라는 자연 배경이 바탕에 있다면 그 특성으로부터 비롯되어 교직하는 인지들 간의 역학을 파악하는 일은 더욱 긴요해진다. 인간이 활동을 통해 공간을 취하고 의미 있는 장소를 생성하듯 도서해양 공간은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한 인간의 생성을 부추기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1970-80년대 도서해양 소설 다섯 편을 대상으로 서사세계 내 공간과 인간 간의 역학을 파악해 작가의 공간 인식과 여성 인물의 재현 양상을 설명하고 이를 경유한 독자의 도서해양 인식의 가능성을 함께 언급했다. 특히 도서해양 소설의 대부분이 남성 작가에 의해 산출되면서 남성 중심의 젠더화된 공간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재현의 양상을 살피는 것이 내부의 역학을 파악하는 데 주요 기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 인물들이 공간을 완전한 삶의 장소로 쟁취하는지의 여부는 우리 문학에서 도서해양 공간이 장소화되는 과정과도 맥을 같이 하리라 여겼다.

유흥종의 「흐르는 섬」과 김용성의 「무거운 손」에서 섬은 남성에게 의해 열고 닫히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때 섬과 일체화되어있는 여성은 남성의 입도(入島)나 거주 없이는 장소성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없으며 결

59) 장일구, 앞의 글, 14면.

60) 위의 글, 22-23면.

국 여성은 자기 자신의 장소를 결여한 채 착취의 공간이거나 쾌락 혹은 연민의 집 장소로 환원되는 데 그치고 만다. 결국 바다를 포함한 섬은 남성 인물의 부수적 장소로 남을 뿐이며 독자들에게도 그곳은 추상적 잔상으로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강인수의 「밀물」과 고시홍의 「표류하는 이어도」는 남성의 부재 속에 고된 노동으로 삶을 꾸려야 하는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놓고 있는 작품이다. 그들 스스로가 쟁취한 것으로 보이는 그녀들의 장소는 다름 아닌 ‘물 속’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곳이기에 안정감과 행복을 주는 장소이기보다는 오히려 이어도에 묶여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고통 속에 자맥질해 들어가야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체현 장소로 해석된다. 따라서 삶의 한복판에서 온전히 자기 의지로 점유해야 할 의미 생성의 장소로 볼 수는 없어 보인다. 이 경우, 독자들의 상상력은 인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선에서 닫히고 말 것이다.

반면 「신궁」의 경우 앞선 작품에서 드러났던 여러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여성 무녀를 중심으로 어촌과 바다의 속성에 바탕해 그곳을 사는 인간들의 삶에 깊이 있게 천착하고 재현함으로써 도서해양 공간의 장소화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자연의 광포함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어민들의 신심, 그것을 다루는 무녀와 또 어민들을 휘두르는 자본의 횡포까지 소설 세계를 구성하는 인자들의 긴밀한 역학 관계가 잘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무당은 그 자신이 신과 인간의 경계 공간이면서 신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존재이며 동시에 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복잡한 인물이다. 또한 ‘굿창’을 ‘하위주체들의 공적 대항공간’으로 삼아 섬사람들의 장소로 운용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과정에서 장선포는, 바다에 인접한 어촌이라는 단순한 배경에 그치지 않고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는 어민과 그 어민들의 신심을 다루는 무녀가 자본주의적 근대의 횡포에 맞서 치열한 분투를 벌일 수밖에 없게 설계된, 자체적 역학을 지닌 공간으로 재의미화된다. 독자들이라면 이 같은 복합적 독해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교점을 이해하고 도서

해양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면 그 중심 인물이 무당이라는 설정은, 자연 공간인 장선포를 역사를 가진 공간이 되게 하지만 동시에 그곳을 인간만의 공간으로 여길 수 없게 하는 한계를 낳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문학사에서 도서해양 공간을 소설 세계로 온전히 포용해 내고 있는 작품을 찾기란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 글에서는 결론적으로 「신궁」을 도서해양 소설을 읽기 위한 공간의 장소화 방식에 대한 전범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같은 류의 소설들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적은 탓에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도서해양 소설들을 다양하게 살펴 후속 연구로 보충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천승세, 「신궁」, 최영호 엮음, 『한국해양문학선집』3, 한경, 1995.
김용성, 「무거운 손」, 최영호 엮음, 『한국해양문학선집』4, 한경, 1995.
유홍종, 「흐르는 섬」, 최영호 엮음, 『한국해양문학선집』4, 한경, 1995.
강인수, 「밀물」, 최영호 엮음, 『한국해양문학선집』5, 한경, 1995.
고시흥, 「표류하는 이어도」, 최영호 엮음, 『한국해양문학선집』5, 한경, 1995.

2. 단행본

- 구모룡, 『해양문학이란 무엇인가』, 전망, 2004.
이승준, 『이청준 소설 연구-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한국학술정보, 2005.
조규익·최영호,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도린 메시, 정현주 역, 『공간, 장소, 젠더』, 서울대출판문화원, 2015.
린다 맥도웰, 여성과공간연구회 역, 『젠더, 정체성, 장소』, 한울아카데미, 2010.
미셸 푸코, 이상길 역, 『헤테로토피아』, 문학과지성사, 2014.
에드워드 케이시, 『장소의 운명』, 박성관 옮김, 에코리브르, 2016.
에드워드 렐프, 김덕현 외 역,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이-푸 투안, 윤영호·김미선 역, 『공간과 장소』, 사이, 2020.
_____, 이옥진 역, 『토포필리아』, 에코리브르, 2011.
팸 모리스, 강희원 역,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 1997.

3. 논문

- 강봉룡, 「섬의 인문학」 담론-섬과 바다의 일체성과 양면성의 문제, 『도서문화』44,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14.
_____, 「HK사업의 성과와 과제- 섬의 인문학: 공간인식 패러다임의 문명사적 전환」, 『도서문화』15, 2018.
김개영, 「천승세 소설에 나타난 섬 공간과 무속 「낙월도」와 「신궁」을 중심으로」, 『도서문화』52, 2018.
김정하,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해양관과 ‘섬’의 상상력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1998.
양윤의, 「천승세 소설 연구-「낙월도」, 「신궁」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52,

-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 오세경, 「제의적 공간과 신화적 인식」,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 옥태권, 「한국 현대 해양소설의 공간의식 연구」, 『동남어문논집』18, 2004.
- 윤애경, 「「신궁」에 나타난 토속적 생명력 연구」, 『어문논집』51, 어문학회, 2005.
- 이광재·정도미·임환모, 「한·중 해양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용봉인문논총』55, 전남대인문학연구소, 2019.
- 이보영, 「종말적인 세계의 명암-천승세론」, 『현대문학』, 1980, 11월호.
- 이봉범, 「농민문제에 대한 문학적 주체성의 회복」, 민족문학사연구소 현대문학분과,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 이용범, 「굿, 소통을 통한 관계맺음의 의례」, 『한국무속학』32, 한국무속학회, 2016.
- 장일구, 「소설 공간론, 그 전제와 지평」,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 정유미, 「1980년대 중반 한국 소설에 나타난 섬의 공간적 상징성 연구」, 『감성연구』9, 호남학연구원, 2014.
- 최갑진, 「한국 현대소설이 갖는 바다의 인식지형」, 조규익·최영호 편,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 최영호, 「환상과 구원의 장소로서의 섬-한국 문학 속의 섬」, 『현대문학이론연구』36, 현대문학이론학회, 2009.
- , 「한국 해양소설의 기호학적 해석 가능성-이창준, 김용성, 유흥중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4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Abstract>

Authors' Spatial Perception and Female Representation in Island Maritime Novels during the 1970s and 1980s

Ma, Hye-Jeong

This study examines how authors perceive space and represent female characters in novels featuring the settings of islands and oceans during the 1970s and 1980s. Furthermore, how island maritime space turns into place in Korean literature is ultimately revealed from the geographical perspective. Space and place are different concepts; the former is abstract and intangible, while the latter is a sub-concept of space and refers to a center of meaning, especially within existence and living space. Characters in each of the narratives struggle to live in their own place and create meaning. This study examines them in three categories, focusing on whether female characters can take island maritime space as a place of a complete life. First, *Flowing Island* (1980) by Hong-jong Yoo and *Heavy Hand* (1981) by Yong-seong Kim identify islands as a space of origin, and women there become one with the islands and these island-women need to be discovered by men and cannot have a place by themselves. Second, *Tidal Wave* (1979) by In-soo Kang and *Drifting Jeodo* (1987) by Si-hong Go are examined with regards to the nature of place by focusing on how husbandless female divers (haenyeo) use the sea as a place of labor. This study views the sea is a place on the border between life and death for female divers. Moreover, while they are able to physically get used to “being in the water” with repeated suffering and

make it their own place, it is only a place into which they have to dive through pain before death, and which embodies their inescapable fate. Third, *Divine Bow* (1977) by Seung-se Cheon focuses on the meaning of gutcheong (gutmadang and gutpan) in the fishing village Jangseonpo and the shaman Wangnyeoni. This study suggests that gutcheong has the meaning of identity as a place where Wangnyeoni acquires her identity as a shaman, while island people turn her gutcheong into a place with a common identity as people who rely on the sea for their livelihood. This study also demonstrates that the history of the island Jangseonpo is internalized in the place occupied by the characters, and that it is the *spirit of the place* that the author intends to reveal.

Key word: Island Maritime Novel, space, place, Spatial Perception, woman, the origin, desire of live, history, strength of inner, destiny

투 고 일: 2023년 8월 20일

심 사 일: 2023년 9월 8일

게재확정일: 2023년 9월 8일

수정마감일: 2023년 9월 18일